

# ‘동네 문화원’ 가보셨나요

### 광주 5개 문화원 각종 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풀뿌리 문화센터로 거듭나

#### 적은 예산·인력 어려움

#### 광주 5개 문화원 프로그램

- ▶ 동구문화원  
대한민국 전통채색화공모전
- ▶ 서구문화원  
이즘마 극단 ‘정거장’ 운영
- ▶ 남구문화원  
어르신 우쿨렐레 합창단
- ▶ 북구문화원  
‘언제나 청춘밴드’ 문화활동
- ▶ 광산구문화원  
음악 문학제·어듬미술제



용아 박용철 시인의 생가에서 열린 광산문화원 인문학콘서트 ‘숨결’.

광주 지역 문화원들이 변하고 있다. 기존 전통문화 보존이나 향토사 수집, 정리 사업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풀뿌리 문화센터’로 발전하는 등 지역 문화 견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각 자치구 문화원의 예산이나 인력이 광역시 중 가장 열악한 형편이어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풀뿌리 문화센터로=문화원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향토사료를 수집·발간하고, 이를 교육하는 역할을 해왔다. 선인들과 지역민들의 사라져 가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이를 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이 같은 향토문화 발굴 조사 사업 외에도 지역 문화행사나 시민문화 프로그램,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광주 각 자치구에 있는 5개 문화원도 기본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 외에도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연회비 2만 원으로 각 문화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할인된 비용에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요, 국악기, 우쿨렐레, 난타 등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유적지 답사, 인문학 강좌 등도 문화원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다.

동구문화원은 대한민국 전통 채색화 공모전과 전국 학생 미술대회를 여는 등 전국 단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 갤러리에서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문화원은 30~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우쿨렐레 연주 교실과 올해 세 번째 공연을 앞둔 이즘마 극단 ‘정거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6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북구문화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



남구문화원 알로하 은빛 앙상블팀의 우쿨렐레 연주.

된 ‘언제나 청춘밴드’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을 문화활동가로 키우고 있다.

남구문화원은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우쿨렐레 합창단을 만들어 운영 중이며, 광산문화원은 음악 문학제, 용아 백일장 대회, 어듬미술제 등 전국 단위 공모 프로그램과 함께 전시회, 인문학 강좌 등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한계와 과제=현재 광주 각 자치구 문화원의 재정 여건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5개 문화원의 인력은 각각 무보수 명예직인 원장을 제외하고 2~3명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도 대부분 연간 1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마저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하면 정작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국 단위 공모 사업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족한 인력은 계약직을 고용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5개 문화원 모두 ‘셋방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교육, 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없다 보니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광산문화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시설 공모에 선정돼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대전 서구문화원은 4년 전 100여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에 공연장, 전시장, 강의실, 향토자료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웅만한 공연장과 미술관에 버금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간 예산은 자체 수입 5억 원을 포함해 10억원 규모로, 운영 인력도 13~14명(정규직 10명)에 달한다.

대전 서구문화원 송재민 국장은 “전국 대부분 문화원의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그 중에서 광주와 전남지역 문화원의 상황은 더 나쁜 것으로 안다”며 “우선 문화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 원사 등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제3회 광주세계아리랑축전 개막공연 ‘기억 2’

## 1만 시민 손잡고 ‘아리랑’ 불렀다

### 광주세계아리랑축전 폐막

### 경연대회 대상 ‘돌움무용단’

광주의 초가을이 우리 소리 ‘아리랑’으로 물들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광주공원 앞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에서 ‘땅의 소리, 겨레의 노래’를 주제로 열린 제3회 광주세계아리랑축전(추진위원장 김포천)이 1만여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3일 열린 식전공연에서는 중무용무용단 제58호 출타기 전승자 김대균의 출타기가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 ‘아라리가 났네’가 축전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또 퍼포먼스 ‘세월’을 시작으로 광주의 오월과 세월호 참극을 상징화한 임지형

무용단의 창작무용극 ‘기억’은 관객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민족 디아스포라인 고려인들이 선보인 아리랑 노래와 춤도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첼비오케스트라와 국악·양악·전문합창단·시민합창단 200여 명은 다양한 아리랑 메들리와 ‘떠나는 아리랑’, ‘돌아오는 아리랑’ 피날레 공연 ‘환희의 아리랑’ 등도 곁들여졌다.

지난 4일은 ‘빛어라 아리랑’ 경연대회가 열려 예산을 통과한 창작아리랑·아리랑댄싱 15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특히 일본에서 온 ‘무라사키노무에’팀이 눈길을 끌었는데, 5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진도아리랑’을 아카펠라로 재구성해 색다른 무대를 선보였다.

전문 문화예술단체들이 참가한 창작아리랑 경연대회에서는 대상에 ‘돌움무

용단’이 시상상과 상금 1000만 원을 받았고, 최우수상 타악그룹 ‘얼썩’이 광주시 의회의장상과 상금 500만원, 우수상은 극단 ‘마음같이’가 축전추진위원장상과 상금 300만 원을 수상했다. 댄싱 동아리들이 참가한 아리랑댄싱 경연대회에서는 ‘일탈’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광주 원형무대와 숲속무대에서도 다양한 볼거리가 진행됐다.

원형무대에서는 시민 동아리 15개 팀이 선보이는 공연·전시와 함께 전국 국악동아리 경연대회 등 시민·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한마당이 열렸다. 또 숲속무대에서는 일본, 중국, 라오스 등 아시아 아티스트들의 스트리트 서커스와 저글링 쇼 등 퍼포먼스가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 강연·포럼 잇따라

### ‘문화유산 다양성...’ 등 주제

### 7·9일 재단 거시기홀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 프로젝트의 하나인 강연과 포럼 등이 연이어 열린다. 7일 오후 2시에는 광주비엔날레재단 거시기홀에서 루자야 아브라콘(동남아 고고학미술지역센터 디렉터)이 ‘문화유산 다양성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오후 3시10분부터는 ‘대안적 가치와 삶’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램 찬드라 포크렐(네팔 개발위원회 설립자 대변인)의 ‘정치적 변화가 네팔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박동훈(중국 연변대 교수)의 ‘중국의 민족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도아트 아힘(독일 부루더하우스스튜디오 대표)의 ‘독일 복지시스템에서 부루더하우스스튜디오-사회서비스를 위한 현재와 미래의 기회와 문제’, 기누오 쿠로가와(일본 국립나루토교육대학 교수)의 ‘일본 소규모 마을 노인의 생활방식: 가치 있는 삶’ 등의 발제가 이어진다.

오는 9일에는 예술의 사회적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온 예술가 집단인 ‘리슨투더 시티’와 함께 하는 ‘점거의 기예’ 포럼이 오후 2시부터 개최된다. 박은선(리슨투더시티 디렉터)씨의 ‘2009년 이후 한국 점거의 공간 정치학’, 터키 도시학자인 펠린 탄의 ‘도시의 갈등 속을 횡단하는 창작에 관하여’, 일본 예술가인 미사코 이치무라의 ‘도쿄 올림픽 그리고 도쿄 공원에서 노숙 공동체의 삶’,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인 단편선의 ‘두리반과 마리아에서의 음악’ 등 발제가 이어진다. 문의 062-608-4224.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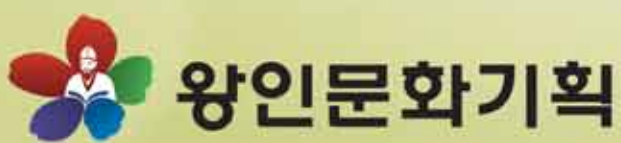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